

하순 천태초교의 스마트한 변신

“전자 칠판 재밌어요” 폐교 위기 시골학교, 유학생도 유치

“오늘 사회 수업에서 교과서는 필요 없어요. 태블릿 가져주세요.” 천태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은 박지선 교사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태블릿PC를 꺼낸다. 박 교사가 교실 앞 8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플립’을 터치하며 수업 자료를 연다. 그동안 학생들은 능숙하게 개인 태블릿PC로 온라인 교실에 접속한다. 플립은 디지털 기기 화면을 연동할 수 있고, 자유로운 판서와 자료 불러오기가 가능한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다. 박 교사가 플립으로 학습 퀴즈를 실행했다. 가정 살림을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를 00이라 한다. 화면에 문제가 뜨자 학생들이 개인 태블릿PC에 정답을 입력한다. 곧바로 정답과 함께 정답을 맞힌 학생 수가 나왔다.

이어서 발표 시간. 조별 발표 준비 시간에 같은 조 학생들이 각 태블릿PC로 발표 자료를 공유해 보고 있다. 이번엔 가상 회사의 상품개발팀 직원이 되어 제품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이전보다 더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청소기를 출시했습니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학생들은 태블릿PC 화면 속 발표(PPT) 파일을 플립으로 공유해 발표를 시작했다. 전남남도 화순군 도암면에 위치한 천태초등학교의 수업 풍경이다. 이곳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일상이다.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자료 공유는 물론 필요할 때면 언제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시도, 광역시도 아닌 면에 있는 시골 학교가 어떻게 이런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됐을까. 지난 11일 천태초등학교를 찾았다. KTX 광주송정역에서 택시를 타고 40분간 눈과 발이 펼쳐진 풍경을 보아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무지개색 건물 앞으로 넓은 잔디 운동장이 펼쳐져 있다. 이현희 천태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직접 심은 천연 잔디 운동장이다.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교사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잔디 운동장처럼 천태초등학교의 스마트한 교육 환경도 교사들의 노력에서 시작했다.

천태초등학교는 불과 5년 전만해도 폐교를 걱정해야 했다. 이현희 교장은 2017년 9월 부임 당시를 회상하며 “학교가 있는 화순군 도암면은 노령화 인구가 많아 학생이 있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다음 해 입학 예정자가 한 명도 없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당시 다른 교사들의 생각도 같았다. 2018년 천태초등학교의 전학년 재학생은 22명에 불과했다. 통상 학교가 폐교되기까지는 복식학급 운영, 초등학교 산하 분교화 과정을 밟는다. 복식학급은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학급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학급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복식학급 운영이 불가피했다. 풀과나무가 필요했다. 그때 ‘삼성 스마트스쿨’ 모집 공고가 한 교사의 눈길을 끌었다.

삼성 스마트스쿨은 삼성전자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중 하나다. 도서산간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삼성 플립, 학생 개인용 태블릿PC 등 최신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 그 밖에 학습 콘텐츠, 교사 연수, 인테리어 등 종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준다. 하지만 기회라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할 수는 없었다. 천태초등학교 교사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수업 모델을 연구한 박지선 교사는 “도에서 지원해준 공용 태블릿PC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동원해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안서를 쓰고 수정하길 반복하며 준비한 기간만 1년이다.

모두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19년, 천태초등학교

삼성 스마트스쿨에 선정돼 탈바꿈 태블릿PC 등 최신 기기 적극 활용 수업 태도, 디지털 능력 개선 효과 미술 시간에 뮤비 제작 ‘융합 수업’ “아이들 자기 주도적, 자신감 넘쳐” 학생 두 배 늘고 도시서 전학오기도

가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삼성 스마트스쿨로 선정됐다. 폐교만은 막아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지는 스마트스쿨 운영팀에게도 전해졌다. 당시 지원 서류를 검토한 박이현 삼성전자 사회공헌팀 프로는 “서류에서 학교를 살리겠다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특히 이미 복식학급 운영과 폐교 경험이 있던 박지선 교사에게 이 프로그램은 더 간절했다. 박 교사는 “저희는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더 절박했어요. 뭔가 하나의 끈을 잡고 싶었거든요. 마침 절실했던 순간에 삼성 스마트스쿨에 선정되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천태초등학교는 2019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스마트스쿨 선정을 계기로 여러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해 연속 선정되며 교실 외 학교 공간이 리모델링되기도 했다. 스마트스쿨이 변화의 첫 단추가 된 셈이다.

가장 먼저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가 변했다. 2019년 하반기 한 교실이 스마트 교실로 리모델링됐고, 개별 학생에게 모두 태블릿PC가 지급됐다. 이후 소위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사라졌다. 개별 태블릿PC를 사용하는 만큼 퀴즈가 있을 땐 정답이



1 지난 11월 11일 천태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박지선 교사가 사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플립 화면에 퀴즈가 나오면 학생들이 개별 태블릿PC로 정답을 입력한다. 2 6학년 학생들이 수업 중 만든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3 전남남도 화순군 도암면에 위치한 천태초등학교 전경. 4 개별 태블릿PC 보관함. 수업 외 시간에는 보관함에 넣어두는 게 학급 규칙이다. (사진 삼성전자)

든 오답이든 직접 답안을 써내야 하고, 과제를 주면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임권일 과학 교사는 “참여 여부가 바로 드러나 보니 일단 참여한다”며 “아이가 기록한 결과물을 함께 볼 수 있고, 데이터가 축적돼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6학년 임성주(12)군은 “연필이 아닌 자판으로 생각을 쳐서 올리니까 훨씬 빠르고 좋다”고 말했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조별 과제를 수행하며 모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교장은 “스마트 스쿨이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조연이 없다는 점”이라며 “모든 아이가 자기 주도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스마트 스쿨에서는 전담 교사가 교과를 분석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차시를 선별하고, 그 차시에 한정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용 빈도가 이전보다 늘어나다 보니 기기 활용 능력이 자연스레 늘어났다. 촬영, 동영상 편집, 작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정규 교육 과정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잠재력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어 국어 시간에 쓴 시를 활용해 음악 시간에 작곡하고, 미술 시간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교과목 간 융합 수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앱을 활용해 6학년 학생이 작곡을 하고 4학년 학생이 작사를 맡고, 전교생이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작곡 대상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해진 학생들이 부모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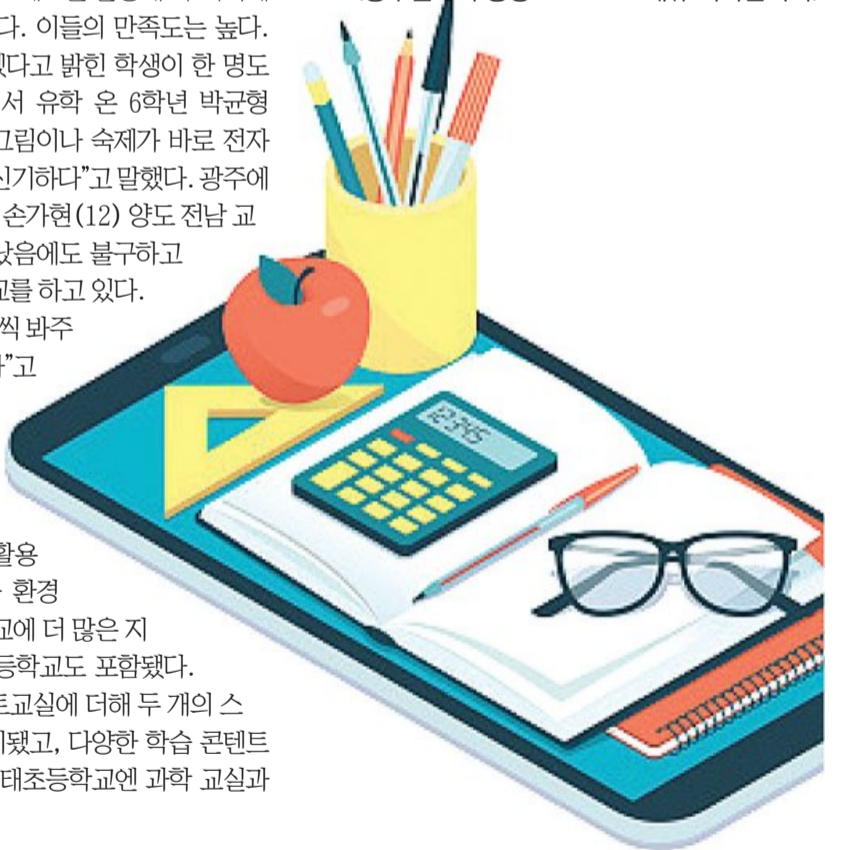
무엇보다 재학생이 늘어나며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재 천태초등학교 재학생은 47명으로 스마트스쿨이 도입되기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차로 20분 거리인 인근 ‘읍’에서 다니는 학생과 서울·광주 등 도시에서 ‘유학’을 오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현희 교장은 “스마트스쿨 수업 참관 후 우리 학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많아졌다”며 “스마트스쿨이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농산어촌 유학’ 제도를 활용해 타 지역에서 온 유학생이 13명이다. 이들의 만족도는 높다.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학생이 한 명도 없다. 2년 전 경기도에서 유학 온 6학년 박준형(12)군은 “내가 그린 그림이나 숙제가 바로 전자 칠판에 뜨는 게 재밌고 신기하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유학 온 정다예(12), 손가현(12) 양도 전남 교육청의 지원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부모님 차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손양은 “선생님이 한 명씩 봐주니까 더 집중이 잘된다”고 남은 이유를 밝혔다.

2012년부터 전국 93개 학교와 193개 교실에 스마트스쿨이 구축됐다. 올해는 이중 활용도가 높고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10개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천태초등학교도 포함됐다. 이들 학교엔 기존 스마트교실에 더해 두 개의 스마트교실이 추가로 설치됐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제공된다. 이로써 천태초등학교엔 과학 교실과

4학년, 6학년 교실 총 3곳에 스마트교실이 생겼다. 바깥쪽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한 디지털 리더러 시 교육도 제공한다. 이현희 교장은 “2022년 삼성 스마트 스쿨은 미래형 교실의 출발점”이라며 “이곳에서 스마트 기기는 더는 게임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디지털 교과서”라고 말했다.

/윤혜인 기자 yun.hyein@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